

생활환경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 영 옥*

박 세 진**

국문요약

최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식 제고와 인구 유출 방지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활환경 만족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성인 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일자리·지역경제, 안전, 교육,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 환경·위생, 농림축산업, 기반시설구축 등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를 함께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환경 만족도의 구성 요소들 간 만족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안전, 환경·위생, 농림축산업 분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일자리·지역경제와 교육 분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생활환경 만족도의 대부분 영역이 지역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만족도가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만족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만족도 형성 과정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 매개효과, 지방소멸

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 이후,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식 제고와 인구 유출 방지가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 제1저자

** 교신저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들의 거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개(49.6%)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로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통계청의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으로의 순유입 인구가 4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환경 만족도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생활환경 만족도가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지역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계속 거주 의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만족도는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 Goudy(1977)가 제시한 지역사회 애착 개념은 지역 만족도가 단순한 서비스 만족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사이에서 지역 만족도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개별적인 생활환경 요소들에 대한 만족이 종합되어 전반적인 지역 만족도를 형성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 거주 의사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애착을 반영하는 지표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Tiebout(1956)의 “발에 의한 투표” 이론은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 체계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활환경 만족도와 지역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주민들의 거주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요인들 간의 개별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직접적인 관계나 지역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접근은 각 요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환경 만족도를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생활환경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생활환경 만족도를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영역이 지역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면적 접근은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영역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합적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의식 형성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환경 만족도의 각 세부 영역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생활환경 만족도의 각 세부 영역이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지역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넷째,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생활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과 관련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사회운동과 관련한 지표에서 시작되었는데, 초기엔 객관적 지표에 초점을 두었다가 점차 주관적 지표 평가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경제성장 과 삶의 질 간의 괴리에 있어 주관적 만족도를 강조하게 되었다(Bauer, 1966: 28). Campbell et al.(1976: 8)은 삶의 질을 “개인이 객관적 생활환경으로부터 느끼는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중시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국내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박철민·송건섭(1999)은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정의하면서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을 토대로 생활환경 만족도가 기본적 욕구 충족에서 시작해 자아실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택의 질, 교통 접근성,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강영웅 외, 2020; 정영아·김윤지, 2022)면서 생활환경 만족도가 거주자의 정주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됐다(이석환 외, 2011; 김윤서·김종진, 2016).

생활환경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삶의 만족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반적 용어(임동진 외, 2021: 217; Diener et al., 2010)로 행정학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의 정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연구가 많았다(최준호 외; 제갈돈, 2013; 2003 임동진 외).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생활 환경’을 측정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각기 어떻게 분류하고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거주환경으로 접근한 Amérgo &

Aragones(1997)의 연구에서는 주택 및 근린환경 요인, 안전 및 프라이버시, 주거 안전, 도시 활동과 소음, 열린 자연 공간, 주거 공간의 질과 근린 인프라, 접근성과 이동성, 이웃과의 관계와 만족 등으로 측정하였다(이창관 외, 2024: 6). 이창관 외(2024)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자연환경과 안전, 의료서비스로 구분하였고, 이 밖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개인 및 지역특성을 더하여 거주만족과 계속 거주여부를 측정하였다. 이주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를 연구한 김나경(2023)의 연구에서는 생활 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생활환경 만족도는 주거환경 만족도와 노동환경 만족도로 구분하고, 주거환경 만족도 측정에서는 센터이용, 상담 요청 가능 등 이주노동자로서의 공공서비스의 접근환경을 측정하고 있다.

생활환경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수에 있어 강영웅 외(2020)는 생활환경 만족도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며, 공공서비스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데,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25개 항목(일자리, 실업자지원, 경제활성화, 물가, 도서관, 평생교육, 초중등교육, 노인, 장애인, 치안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 수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였다. 이경영·정문기(2021)는 생활환경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4개 영역(주택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서비스, 경제활동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생활환경 만족도는 여러 하위 변수들로 세분화되는데, 주택환경, 교통, 공공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는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과 같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지역 만족도

지역 만족도(communitary satisfaction)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개념이다(Rioux & Werner, 2011; 박관태·정보영·정문기, 2022: 162). 지역 만족도의 개념은 여러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신미정·이양수(2018)은 개인의 행복도, 삶의 질, 주관적 웰빙 등과 혼용되고 있고, 조영숙 외(2004)는 앞의 개념들이 사회경제적 조건, 생활환경, 역사문화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역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박관태·정보영·정문기, 2022: 162-163).

다차원적이며 다의적 개념인 지역 만족도 연구는 생활환경 만족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다. Goudy(1977)는 지역사회 애착(communitary attach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 만족도가 단순한 서비스 만족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만족도를 단순한 서비스 평가를 넘어선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 만족도는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해 느끼는 종합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을 정주의식으로 접근한 기존 강영웅 외(2020)의 연구에서는 정주의식이 높은 주민은 지방정부의 외적 역량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해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성과의 차이가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강혜진(2018)은 지역만족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정의하였는데,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 모델을 지역 만족도 연구에 적용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강혜진의 지역만족도 측정은 Anderson & Weidemann(1997)이 제시한 4개의 질문 문항은 전반적인 만족 자체를 묻는 지역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거주 의사로 구분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가 클수록 지역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의 지역 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공공서비스의 만족과 연결되는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만족이 지역애착 또는 정주의사 이어지는지에 관한 연구(이석환·김차희·조주연, 2011; 김윤서·김종진, 2016; 고명철, 2018; 강영웅 외, 2020; 이경영·정문기, 2021; 정영아·김윤지, 2021)에서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은 곧 지역의 애착이나 거주자 만족도를 증가시켜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 만족도는 주거 만족도보다 더 다양한 지역사회 현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연구로 김세운·정현·정문기(2020)는 지역축제 만족도가 지역애착도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이들은 “지역애착도가 높을수록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에 참여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사회자본이론을 적용해, 지역축제가 지역 만족도와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 지역 만족도를 형성하며, 이는 다시 거주자의 정주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장기적인 거주 의사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지역 만족도는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적 평가로 정의한 박관태 외(2022)의 개념을 활용한다. 박관태 외(2022)는 이 개념이 가계의 경제지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지역사회 현상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역만족도’를 사용한 강혜진(2018)의 측정도구와 박관태 외(2022)의 도구를 활용한다.

3. 계속 거주 의사

계속 거주 의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구이동 이론에 기반을 둔다. Tiebout(1956)의 “발에 의한 투표” 이론은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와 세금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이후 많은 지역 거주 의사 연구의 기초가 됐다. Wolpert(1965)는 장소 효용(place utility) 개념을 제시하며, 개인이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효용을 비교해 이주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지역 거주 의사가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이은우(1998)가 지역 간 삶의 질 차이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연구했다. 삶의 질 수준과 인구이동 간 관계가 강한 외국과는 달리, 삶의 질 수준과 인구이동

과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계속 거주 의사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살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주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주의식은 주민이 특정 지역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안정감과 애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을 고려해 소속감을 인지하고 정주의식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다(강영웅 외, 2020: 110).

한편 계속 거주 의사는 여러 하위 변수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주거 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며, 이 요소는 지역에 대한 정주의사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영 외, 2021: 206). 지역경제의 안정성 역시 중요한 하위 변수로 작용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일수록(지역경제수준 1인당 GRDP가 높을수록) 주민들은 더 오래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정영아·김윤지, 2021: 55). 또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애착을 반영한다.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유대감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정주의사도 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창현·박지영(2023)은 청년층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장소'가 삶의 안정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활동반경이 확장되면서 발견되기도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이창현·박지영, 2023: 148).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와 정주성의 관계를 연구한 이경영과 정문기(2021)는 정주성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정의하고 주민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비교해 거주 결정을 하며, 정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단순 정주의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현재 거주지역에 지속 거주의향(적극 정주의지)'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계속 거주 의사가 단순히 물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적 요구와 사회적 관계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연구에서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연관성이 강하게 입증되고 있다. 생활환경 만족도와 지역 거주 의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티부가설을 들 수 있는데, 응익의 원칙에 의한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없어 효율적 공급이 어려운 공공재 공급을 두고 티부(Charles M. Tibout, 1956)는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재를 공급할 때 응익의 원칙에 의한 가격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때 지방세와 공공서비스 정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지방정부 쇼핑'이라는 선호로써 최적 수준의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티부 가설은 국가 공공재와 달리 지방공공재는 효율적 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 논리 제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남재걸, 2022: 4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양호할수록 주민들의 지역 거주 의향이 높아지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강영웅 외, 2020: 이경

영 외, 2021; 정영아 외, 2021). 생활환경 만족도는 주거지의 물리적 여건뿐 아니라 지역 내 공공서비스, 교육 여건,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육 여건, 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공동체 의식 등의 생활환경 요소가 해당 지역에 대한 주거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서·김종진, 2016: 88).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생활환경을 조성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대한 장기 거주 의향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성과 체감도는 주민들의 거주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이석환 외, 2011: 153), 양질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은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므로(강영웅 외, 2020: 140)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분석자료	연구내용	연구결과
이경영 ·정문기 (2021)	만 25~49세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주택지원, 주거환경, 경제활동 11개 항목) • 종속변수: 정주성 • 조절변수: 지역 경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성이 강화됨 • 경제력 상위지역에서 경제활동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경제력 하위지역에서 주택지원 서비스 만족도 영향력이 각각 증대
강영웅 ·이승중 ·이혜림 (2020)	만 19세 이상 7,5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공공서비스 만족도(25개 항목) 공공서비스, 지방행정서비스, 환경서비스, 지역경제서비스 • 종속변수: 정주의식 • 조절변수: 욕구충족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 모두 정주의식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 미침 • 욕구충족 집단별로 공공서비스의 영향력이 다름 • 기초생활인프라 서비스가 모든 집단에서 중요하게 나타남
정영아 ·김윤지 (2022)	21세 이상 9,759명 경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생분석: 거주기간, 참여 • 외생변수: 기대불일치, 지역사회유대, 성별, 혼인, 연령, 학력, 소득, 주거형태, 수도권 여부, 지방세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불일치가 거주기간을 줄이고, 참여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사회 유대가 이러한 관계를 완화함
이창현 ·박지영 (2023)	공주시 이주청년 7명 포토보이스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지역 환경, 지역 활동 • 종속변수: 정주지속의사 • 매개변수: 장소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장소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지역에 정주할 의사가 높아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함.
이석환 ·김차희 ·조주연 (2011)	20세 이상 A지방정부 695명, B지방정부 1,0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지방정부 성과 체감도, 경쟁밀도 • 종속변수: 거주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체감도가 높은 지방정부에서는 거주 의사가 높아지지만, 경쟁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거주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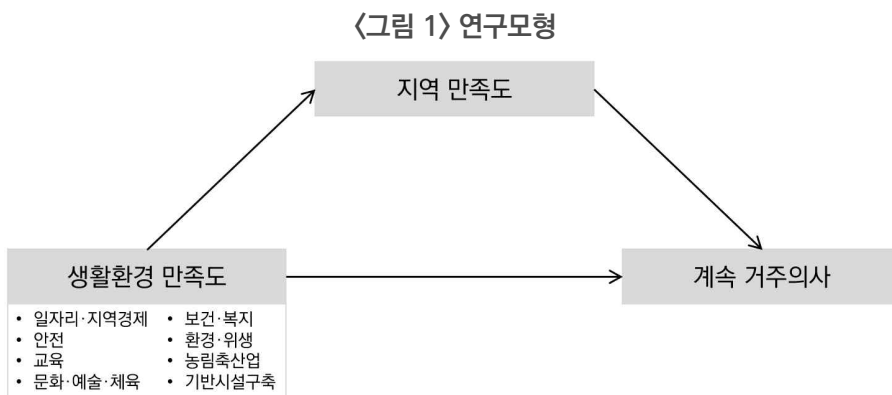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관계에서 지역만

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직접적으로 계속 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8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하여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한다. 개별적인 생활환경 요소들에 대한 만족도가 종합되어 전반적인 지역 만족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전반적 만족도가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를 반영하여 지역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 생활환경 만족도의 각 세부 영역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 만족도의 각 세부 영역이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 지역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변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강영웅·이승중·이혜림(2020), 이경영·정문기(2021), 김윤서·김종진(2016)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측정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를 참고하여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지역경제, 안전, 교육,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 환경·위생, 농림축산업, 기반시설구축이다. 이 항목은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이 되는 무주군의 지역정책 공약의 분야별 항목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고령층이 많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생활환경 분류의 기준으로

익숙할 것이라는 기대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점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 2점은 '만족하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함', 5점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생활환경 만족도를 단일 차원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만족도는 강혜진(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는 "무주군 지역 만족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0점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점은 '매우 만족한다'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일 문항 측정은 지역 주민이 지역에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점수의 간극을 세밀화함으로써 단일 문항 측정의 응답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무주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수는 생활환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개별적인 만족도를 종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요소들(예: 지역에 대한 애착, 소속감 등)도 반영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이다.

계속 거주 의사는 이경영·정문기(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 거주 희망"이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계속 거주 의사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항목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0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본 연구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대다수 고령화되어 있고, 계속 거주 의사에 대한 측정은 자녀 거주 희망이라는 설문이 가장 직관적일 수 있다. 연령에 주목한 유나영·이기훈·마강래(2022)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소멸 위기를 느끼더라도 나이가 많은 연령층은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계속 거주 의사를 본인의 계속 거주 의사를 대체하여 자녀의 계속 거주 의사로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단순히 응답자 본인의 거주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거주까지 고려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거주 의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응답자가 현재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역 발전 가능성, 자녀 세대를 위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만족도를 넘어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애착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변수의 측정을 통해 본 연구는 생활환경 만족도가 지역 만족도를 매개로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 방식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활환경 만족도의 세부 영역별 측정, 지역 만족도의 종합적 평가, 그리고 계속 거주 의사의 장기적 관점 도입 등을 통해 연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조사를 병

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6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33부를 제외한 최종 572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여부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셋째,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여부 간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4.3을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321명(56.1%), 여성 251명(43.9%)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55명(9.6%), 30대 108명(18.9%), 40대 141명(24.7%), 50대 185명(32.3%), 60대 57명(10.0%), 70대 15명(2.6%), 80대 이상 11명(1.9%)이었다.

<표 2>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321	56.1	거주 지역	무주읍	352	61.5
	여성	251	43.9		무풍면	31	5.4
연령	20대	55	9.6		부남면	28	4.9
	30대	108	18.9		설천면	44	7.7
	40대	141	24.7		안성면	75	13.1
	50대	185	32.3		적상면	42	7.3
	60대	57	10.0		직업	농림축산업	67
	70대	15	2.6	제조업·건설업		6	1.0
	80대 이상	11	1.9	판매업		22	3.8
	최종 학력	무학	5	0.9		서비스업	62
초등학교 졸업		16	2.8	공무원		177	30.9
중학교 졸업		29	5.1	전문직		43	7.5
고등학교 졸업		142	24.8	회사원		82	14.3
전문대학교 졸업		77	13.5	주부		31	5.4
4년제 대학교 졸업		278	48.6	학생		5	0.9
대학원 이상		25	4.4	무직		30	5.2
전체		572	100.0	기타	47	8.2	

최종학력은 무학 5명(0.9%), 초등학교 졸업 16명(2.8%), 중학교 졸업 29명(5.1%), 고등학교 졸업 142명(24.8%), 2·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 77명(13.5%), 4년제 대학교 졸업 278명(48.6%), 대학원 이상 25명(4.4%)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무주읍이 352명(61.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안성면 75명(13.1%), 설천면 44명(7.7%), 무풍면 31명(5.4%), 부남면 28명(4.9%) 순이었다. 직업은 공무원이 177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사원 82명(14.3%), 농림축산업 67명(11.7%), 서비스업 62명(10.8%), 전문직 43명(7.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 분포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에 대한 분포는 <표 3>과 같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안전 만족도가 3.46점(sd=0.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환경·위생 만족도 3.42점(sd=0.90), 농림축산업 만족도 3.34점(sd=0.83), 보건·복지 만족도 3.13점(sd=1.04), 기반시설구축 만족도 3.09점(sd=0.91), 문화·예술·체육 만족도 3.07점(sd=1.02), 교육 만족도 2.95점(sd=0.97),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 2.78점(sd=0.9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만족도는 5.99점(sd=2.19)으로 보통 수준이며, 계속 거주 의사는 4.44점(sd=2.87)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에 대한 분포

구분	Mean±SD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	2.78±0.94	1	5	0.06	-0.23
안전 만족도	3.46±0.81	1	5	-0.22	0.13
교육 만족도	2.95±0.97	1	5	-0.04	-0.14
생활환경 만족도					
문화·예술·체육 만족도	3.07±1.02	1	5	-0.19	-0.42
보건·복지 만족도	3.13±1.04	1	5	-0.16	-0.50
환경·위생 만족도	3.42±0.90	1	5	-0.30	0.13
농림축산업 만족도	3.34±0.83	1	5	-0.22	0.42
기반시설구축 만족도	3.09±0.91	1	5	-0.12	0.13
지역 만족도	5.99±2.19	0	10	-0.53	0.16
계속 거주 의사	4.44±2.87	0	10	0.13	-0.85

3.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및 계속 거주 의사 간 상관관계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및 계속 거주 의사 간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인 생활환경 만족도 간 상관관계수는 0.299~0.566으로 낮은 또는 보통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활환경 만족도와 지역 만족도 간 상관관계수는 0.446~0.612로 보통의 상관관계를,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 상관관계수는 0.285~0.587로 낮은 또는 보통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4〉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및 계속 거주 의사 간 상관관계

구분	일자리 ·지역 경제	안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복지	환경 ·위생	농림 축산업	기반 시설	지역 만족도	지역 거주 의사
일자리·지역경제	1									
안전	0.391**	1								
교육	0.556**	0.377**	1							
문화·예술·체육	0.460**	0.315**	0.527**	1						
보건·복지	0.389**	0.320**	0.449**	0.470**	1					
환경·위생	0.358**	0.525**	0.353**	0.385**	0.427**	1				
농림축산업	0.307**	0.548**	0.310**	0.299**	0.299**	0.566**	1			
기반시설	0.476**	0.454**	0.471**	0.511**	0.462**	0.482**	0.514**	1		
지역 만족도	0.541**	0.446**	0.560**	0.572**	0.475**	0.498**	0.472**	0.612**	1	
계속 거주 의사	0.428**	0.290**	0.365**	0.409**	0.355**	0.291**	0.285**	0.416**	0.587**	1

* $p < 0.05$, ** $p < 0.01$

4.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 관계에서 지역만족도의 매개효과

1단계 모형은 독립변수인 생활환경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 5〉와 같다. 생활환경 만족도가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90.709$, $p < 0.001$), 이때 VIF는 1.535~1.925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B=0.352$, $p < 0.001$), 교육 만족도($B=0.359$, $p < 0.001$), 문화·예술·체육 만족도($B=0.420$, $p < 0.001$), 보건·복지 만족도($B=0.143$, $p=0.049$), 환경·위생 만족도($B=0.241$, $p=0.009$), 농림축산업 만족도($B=0.302$, $p=0.002$), 기반시설구축 만족도($B=0.513$, $p < 0.001$)는 매개변수인 지역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생활환경 만족도가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수	B	SE	β	t	p
	(상수)	-1.497	0.316		-4.734**	<0.001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	0.352	0.084	0.151	4.210**	<0.001
	안전 만족도	0.085	0.098	0.032	0.871	0.384
	교육 만족도	0.359	0.084	0.159	4.272**	<0.001
1단계 모형	문화·예술·체육 만족도	0.420	0.078	0.195	5.379**	<0.001
(지역 만족도)	보건·복지 만족도	0.143	0.072	0.068	1.972*	0.049
	환경·위생 만족도	0.241	0.091	0.099	2.641**	0.009
	농림축산업 만족도	0.302	0.099	0.115	3.062**	0.002
	기반시설구축 만족도	0.513	0.093	0.213	5.498**	<0.001

$F=90.709$ ($p < 0.001$), $R^2 = 0.563$

* $p < 0.05$, ** $p < 0.01$

2단계 모형은 독립변수인 생활환경 만족도와 매개변수인 지역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 6>과 같다. 생활환경 만족도와 지역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6.946, p<0.001$), 이때 VIF는 1.546~2.289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B=0.430, p=0.001$)와 매개변수인 지역 만족도($B=0.603, p<0.001$)는 계속 거주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는 계속 거주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변수들은 지역 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배경을 보면, 농촌 지역의 고령화된 인구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의 경우 정주기반이 확고한 상태이며, 교육, 문화 기반시설 등 요소들이 거주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요인은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직접 영향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은 농촌 경제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대상 지역은 농업이 주된 소득원이므로, 다른 생활환경 요소들보다 경제적 요인이 정주 의사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농업 외 소득원의 부족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에서는 문화나 교육,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적응이 해당 요소들의 직접효과를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표 6> 생활환경 만족도와 지역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수	B	SE	β	t	p
2단계 모형 (계속 거주 의사)	(상수)	-1.154	0.508		-2.271*	0.024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	0.430	0.134	0.141	3.209**	0.001
	안전 만족도	0.046	0.154	0.013	0.298	0.766
	교육 만족도	-0.125	0.135	-0.042	-0.931	0.352
	문화·예술·체육 만족도	0.188	0.126	0.067	1.489	0.137
	보건·복지 만족도	0.192	0.115	0.070	1.674	0.095
	환경·위생 만족도	-0.179	0.145	-0.056	-1.239	0.216
	농림축산업 만족도	0.001	0.157	0.000	0.008	0.994
	기반시설구축 만족도	0.137	0.151	0.043	0.907	0.365
	지역만족도	0.603	0.066	0.459	9.077**	<0.001
F=36.946(p<0.001), R ² = 0.372						

* $p<0.05$, ** $p<0.01$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표 7>과 같다. 이때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 교육 만족도, 문화·예술·체육 만족도, 환경·위생 만족도, 농림축산업 만족도, 기반시설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

만족도의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B	SE	95% Boot CI	
			LLCI	ULCI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	0.212	0.062	0.101	0.344
안전 만족도	0.051	0.072	-0.085	0.195
교육 만족도	0.216	0.069	0.090	0.364
문화·예술·체육 만족도	0.254	0.065	0.134	0.384
보건·복지 만족도	0.086	0.054	-0.012	0.201
환경·위생 만족도	0.145	0.066	0.020	0.277
농림축산업 만족도	0.182	0.068	0.052	0.319
기반시설구축 만족도	0.309	0.069	0.183	0.452

V. 결론

본 연구는 생활환경 만족도가 계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지역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무주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환경 만족도의 여러 영역 중 안전, 환경·위생, 농림축산업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지역경제, 교육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주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인구밀도가 낮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농림축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한 교육 인프라 약화는 이 분야들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생활환경 만족도의 대부분 영역이 지역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구축, 문화·예술·체육, 일자리·지역경제, 교육 만족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영웅 외(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이 주민들의 정주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무주군의 경우, 최근 진행된 기반시설 개선 사업과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이 주민들의 지역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계속 거주 의사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요인은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이경영·정문기(2021)의 연구에서 경제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무주군의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주

민들의 정주의사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기반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넷째, 지역 만족도는 생활환경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Goudy(1977)가 제시한 지역사회 애착 개념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무주군의 경우 생활환경 개선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넘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것이 다시 계속 거주 의사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무주군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주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산악지형으로 스키장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평야지대 농촌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지역경제 만족도의 직접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주는 상대적으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리적 고립성이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무주와 같이 도시와의 접근이 낮은 산악형 농촌지역이나 관광자원을 보유한 농촌지역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만족도, 계속 거주 의사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생활환경 만족도 연구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니는 한계와 함께 지역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사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면서 응답자의 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거주 의사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 상호작용과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 환경요인과 주관적 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심층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영웅·이승중·이혜림. (2020).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4(3), 107-140.
- 강혜진. (2018).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67-99.
- 고명철. (2018).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애착과 이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신뢰에 의한 지역사회 생활의 질(community QoL)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19-146.
- 김나경. (2023) 전라남도 거주 이주노동자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3): 3387-

- 3402.
- 김세운·정현·정문기. (2020). 지역축제 만족도가 지역애착도와 지방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마산 국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31-58.
- 김윤서·김종진. (20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4(4): 73-90.
- 남재걸. (2022). 지방자치론. 박영사.
- 박관태·정보영·정문기. (2022). 공동체의식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1(1): 157-186.
- 박철민·송건섭. (1999). 자치구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분석 평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1(4): 103-123.
- 신미정·이양수. (2018).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29(2): 185-207.
- 유나영·이기훈·마강래. (2022).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8(4): 19-29.
- 이경영·정문기. (2021).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 분석.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만25세~49세)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2): 203-227.
- 이석환·김차희·조주연. (2011). 지방정부의 성과체감도가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GRI연구논총」, 13(3), 137-157.
- 이은우. (1998). 지역 간 삶의 질 차이와 인구이동과의 관계. 「경제연구」, 7(2): 233-254.
- 이창관·박선주. (2024).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 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1-33.
- 이창현·박지영. (2023). 청년들의 지방이주와 정주지속을 위한 장소정체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51(3): 139-152.
- 임동진·김옥녀. (2021). 지방중소도시 이민자들의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과 생활서비스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1): 213-246.
- 정영아·김윤지. (2021).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55-76.
- 정영아·김윤지. (2022). 지방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거주기간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유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331-358.
- 조영숙·황대용·박은식·고정숙. (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113-125.
- 제갈돈. (2013).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성과 및 만족도의 관계: 기대불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1), 69-94.
- 최준호·이환범·송건섭. (2003). 광역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지역주민간의 상호 이주영향 요인평가: 공공서비스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183-203.
-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방소멸 2024」.

- 홍준현. (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161-178.
- Amérigo, M. a. & J. I. Aragones. (1997).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7(1): 47-57.
- Anderson, J. R. & Weidemann, S. (1997). Developing and utilizing models of resident satisfaction. In G. Moore and R. Marans (Ed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pp. 287-314). New York: Plenum.
- Bauer, R. A. (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 MIT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By Angus Campbell, Phil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Helliwell, J., & Kahneman, D. (2010). Introduction. In E. Diener, J. Helliwell, & D. Kahneman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pp. ix-xviii).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Goudy, W. J. (1977). Evaluations of local attributes and community satisfaction in small towns. *Rural Sociology*, 42(3), 371-38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Oliver, R. L. (1980).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Rioux, L., & Werner, C. (2011).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Aging People Living in Pla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2): 158-169.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Wolpert, J. (1965). Behavioral Aspects of the Decision to Migrate. *Papers in Regional Science*, 15(1), 159-169.

전영옥(全永沃):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의 영향에 관한 연구, 2009)를 취득하고 현재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ssua25@kunsan.ac.kr)

박세진(朴世眞):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Visualizing Geospatial Data with Statistical Graphs on Google Maps and Micromaps, 2016)를 취득하고,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junesj@jbnu.ac.kr)

Abstract

The Impact of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on Intention to Continue Resid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gional Satisfaction

Chon, Young Ok

Park, Se Jin

As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tensifies, improving residents' willingness to settle and preventing population outflow have emerged as crucial tasks for local govern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living environment on their intention to continue residing in the area,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regional satisfaction in this relationship. By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we sought to deriv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to address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572 adults who had resided in Muju-gun, Jeollabuk-do for more than one year.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as composed of eight areas including jobs/local economy, safety, education, culture/arts/sports, health/welfare, environment/hygiene, agriculture/forestry/livestock,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ional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residing were also measur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The analysis revealed differences in satisfaction levels among the components of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hile satisfaction with safety, environment/hygiene, and agriculture/forestry/livestock areas was high, satisfaction with jobs/local economy and education was relatively low. Moreover, most areas of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regional satisfaction, with job/local economy satisfaction having a direct impa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residing. Notably, region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residing.

Key Words: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regional satisfaction, intention to continue residing, mediating effect, local extinction